

함께 듣고, 함께 만든다

구민과의 대화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오는 12일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구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구민과의 대화에서는 ▲2025년도 주요 건의 사항 추진 경과 공유 ▲특별히 다른 우리 동네 주민자치 사례 소개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언 등 질의응답 중심의 소통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구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주민참여형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구성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8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이다.

이채봉 기자

경찰서와 협업 생명있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해

서천군은 ‘2025년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5천만원을 투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서천군은 자살 발생 빈도가 높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발굴해 「자살예방 다함께 만들어가는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정신건강 캐리커 ‘코음이’를 활용한 조형물 벤치를 설치하고, LED 큐브형 안내판과 바다 조명 등을 조성해 생명사랑 실천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장소 선정과 위기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서천경찰서 범죄예방정책과 및 범죄예방진단팀(CPO)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CCTV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자살 시도자 및 의도자 등 정신·자살 고위험군 60여건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기도 했다. 나성구 소장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이 ‘2025년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은 총 2,651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현진 기자

##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기업과 간담회

대전시, 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방산기업 지원정책과 발전방안 논의



대전시는 8일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 2025년‘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아이프리스시스템 정한 대표 ▲라이온로보틱스 황보제민 대표 ▲스텝랩 오현웅 대표 ▲유저스 류석진 대표 ▲데이터메이커 이예녹 대표 ▲유큐브 김정범 대표 ▲텔레픽스 조성익 대표가 참석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22년 시작된‘방산혁신기업 100’사업은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우주, 드론,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연도별 20개사 내외로 5년간 총 100개사를 지정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5년 선정기업 21개사 중 대전 7개사(33%)가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22~2025년 선정 83개사 중 대전기업 26개사(31.3%)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배출했다.

각 기업은 기술개발 전용사업으로 5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자금 지원·연구개발 지원·수출지원과 방위사업청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 종합적인 혜택을 받는다.

기업대표들은 방산혁신기업 100공모선정 준비 과정, 주요기술, 그간의 기업성과를 공유했으며 대전시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행정적 지원 방안과 국방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명실상부 첨단 국방수도로 성장 중이며 방산혁신기업100에 선정된 기업들이 그 위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안전첨단국방산업단지 입주 지원, 대전투자금융 운영, 기업맞춤형 인재육성과 관내 방산기업 집중육성 정책 등을 통해 방산혁신 생태계를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5년 특구성과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우수’에 선정됐다.

이채봉 기자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 확대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속한 가구도 지원…최대 18만 7,000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기존 10개월(3~12월)에서 1~12월까지 12개월로 늘어났다.

지원액은 보장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 원에서 10인 가구 이

상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원액의 10% 미만 잔액이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말일 전액 소멸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물론 올해 새롭게 구입품목으로 추가된 밤·잰·호두 등 임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등)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심장터 4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자동응답전화,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기존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

1. 1일부터 전 축산물가공업체 영양표시 의무 적용

충북도는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도내 전 축산물가공업체(323개소)로 확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소규모 영세업체를 포함하여 단계적 시행이 완료되었다.

다만, 버터류,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로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9종으로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이나,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

되지 않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도지사는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영상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진천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진천군의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진천군은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인 만큼,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 당진 섬 찾아 재난 대응역량 살피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8일 당진 지역 유인도서와 소방정대를 찾아 도서지역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해상 접근성이 제한적인 도서지역의 화재·산불·응급환자 대응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성 본부장은 이날 당진 소방정대를 찾아 소방정 운영 현황과 출동 태세, 해상 재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이후 소방정을 이용해 대난지도, 소난지도 등 당진 지역 유인도서를 차례로 방문해 섬 내 소방시설과 장비 현황을 살피고 화재·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공용소화기함, 소방용수시설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한 나르미션 등 해상 이송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유인도서와 해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서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3일에는 보령 삼시도를 방문해 도서지역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삼시도에서는 도서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과 응급상황 대응체계,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성 본부장은 “섬에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시통발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